



“실현 가능한 비엔날레 계획안 이달말께 내놓겠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

**비엔날레 성장 발판 마련 위해 공간부터 채울 것
‘찾아오는 관광도시’ 경제·교육계 도움도 절실
지역 사회 부정적 목소리 해소 위해 언젠대 소통**

“비엔날레가 최근 발표한 7대 혁신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제가 전공한 예술경영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TF팀을 만든 후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종합계획안을 내놓겠습니다. 누구나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 다들어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비엔날레 박양우(57)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홀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을 바탕으로 둔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광주 고항인 박 대표이사는 “다시 고향에 와 일을 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주저했

는데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하게 된 앞으로의 제 삶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광주와 광주비엔날레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했다. 몇 년째 한푼도 늘어나지 않은 285억 원의 기금,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 기업 후원금, 다른 시도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등을 언급했다. 국내 대표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 대한 중앙정부나 시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이사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를 비교하며 “2년 동안 광주시가 30억 원을 지원하는데 부산시는 같은 기간 국제영화제에 12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사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이제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100이

라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의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재 비엔날레 시장입니다.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선 공간부터 채우겠습니다.”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비전과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전과 실행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행정이고, 경영입니다. 그걸 대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때로는 소망스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재정적 문제 등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대표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을 살펴야 하죠.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을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 종합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는 협력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당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광주를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를 예화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승부하고 있습니까. 영화는 부산, 게임은 판교, 애니메이션은 부천에서 선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죠. 저는 광주비엔날레와 다른 행사들을 더 성공시켜

서 우리 광주가 문화, 문화 산업,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또 예술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사회는 물론 광주경제, 교육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박 대표이사는 “지역 사회에서 비엔날레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만 해소를 위해 언젠가라도 앉아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와의 만남은 물론 혁신위가 제시한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 등을 꾸려 감독 선정과 비엔날레 운영 등에 관한 조언을 들을 계획이다.

박 대표이사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달리 드릴 것이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수상 취임 연설문을 빌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실 저는 피를 흘린 자식은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눈물 비슷한 것도 많이 흘려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맘도 많이 흘렸겠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와 광주, 예술에 대한 사랑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박 신임대표 이사의 취임식은 2일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 보물 지정 예고



‘청동불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이 소장하고 있는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지난 2003년 순천 매곡동에 위치한 석탑의 부재에서 발견된 것으로 청동 불감(佛龕·불상을 안치하는 소형 불전)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그리고 불상 속에서 나온 발원문(發願文) 8매 등 모두 5건에 5점이다.

이 유물들은 석탑의 건립과 관련해 매장된 유물이다. 발원문은 당시 사람들이 지냈던 극락왕생의 염원 등 조선 초기 불교신앙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세 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열해 지장보살-아미타불-관음보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행한 아미타삼존불의 구성 형식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이 보물로 지정될 경우 국립광주박물관은 국보 3건 9점(중흥산성성사지석등,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유물 일괄, 상지니묘비연화경 7점) 및 보물 3건 80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순천 매곡동 석탑 발원 유물’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불교문화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커피향 따라 인문학 산책

오늘부터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

리얼리티(실현)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 시민인문학’이 19기 정기강좌를 연다. 2일부터 29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정규와 SEMI로 나눠 인문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룬다.

정규 강좌(오후 7시 30분)는 인문학 입문, 철학, 철학스터디, 융복합학, 일본문학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월요일에는 명혜영(일문학) 교수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바보의 벽 허물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은 위상복(철학) 전남대 명예교수가 ‘사유와 철학적 인문학II’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론스터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진(융복합학) 교

수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지나 사피엔스, 다스리니 함께 산다’와 ‘양성의 사투-‘열쇠’의 부부관계’를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월·수 오전 10시30분·토·일 오후 2시)에서는 박상희 6·15사무국장이 ‘1인 1악기 도전 프로젝트-with 기타’(월요일), 임창진 사진작가가 ‘스마트폰 앵글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 세상’(수요일)을 강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화읽기와 놀이인문 시간으로 ‘명화여 다시 한번!’, ‘일상, 조금자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수강료 조합원 1만원, 일반회원 2만원, 학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공연작 선정

음악 16건 등 20건...창작곡·공연장 대관 등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목요일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2015 목요상설무대’ 공연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목요상설무대 공연작품 공모는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으며 62개 작품 접수, 이 가운데 20개 단체가 올레 상·하반기 목요상설공연 무대에 오르게 됐다.

목요상설무대 공연작품으로 음악 16건, 국악 2건, 연극 2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 공연에는 창작지원금 50만원, 공연장 무료대관, 장비·시설 운송인력 및 안내요원,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목요상설무대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보이는 목요상설무대는 4월 2일 극단 연우랑 ‘환상 교향곡’을 시작으로 올 일정을 시작한다. 김창순씨의 ‘강산제 심청가 발



극단 ‘깍지’ 공연

표회’(4월 9일), 극단 깍지 ‘기억의 길’(4월 16일), 박수용 재즈 밴드 ‘해설이 있는 재즈 음악회’(4월 30일), 이민영 ‘동심을 노래하는 재즈 음악회’(5월 7일) 등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 밖에도 함정욱 피아노 독주회(6월 4일), 전채리 ‘가을에 흐르는 낭만’(9월 3일), 빅맨싱어즈 ‘우리들은 미남이다’(10월 8일) 등의 공연이 관객을 맞는다.

모든 공연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가능하다. 문의 062-670-79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리랑하우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